

'바람 바람 바람', 유쾌한 19금 코미디



모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유쾌한 '바람 바람 바람' (감독 이병헌·제작 하이브 미디어코프)은 불륜을 19금 코미디가 탄생했다.

이병헌 감독, 자신만의 색깔 넣어 웃음 선사 배우들 열연, '말맛' 코미디 살리는데 한몫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체크 영화 '희망에 빠진 남자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바람의 집결지(이성민)과 뒤늦게 바람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매제 봉수(신하균), 그리고 SNS와 사랑에 빠진 봉수의 아내 미영(송지효) 앞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제니(이엘)가 나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가는 상황을 그렸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바람을 피우는 석근의 모습이 그려진다. 과거 롤러코스터 디자이너였던 석근은 제주도에서 모범택시를 운전하며 바람을 일삼는다. 하지만 아내 담덕(정영남)에게는 한없이 다정하며 은밀한 이중생활을 즐긴다.

미영과 봉수는 결혼 8년 차 부부. 스킨십조차 목적이 아니고 할 만큼 애정이 식은지 오래다. 무기력하고 소심한 봉수는 어느 날 제니를 만나고 삶의 활력을 찾는다. 달리진 봉수의 모습은 부부 관계 또한 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니의 도발은 점점 봉수를 속죄하게 만들고, 이슬이슬한 관계를 이어간다.

'바람 바람 바람'은 전작 '스물'로 300만 관객을 이끈 이병헌 감독의 두 번째 상업영화다. 앞서 특유의 '말맛' 코미디로 이병헌 포 코미디 장르를 구축한 그는 '바람 바람 바람'에

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넣어 웃음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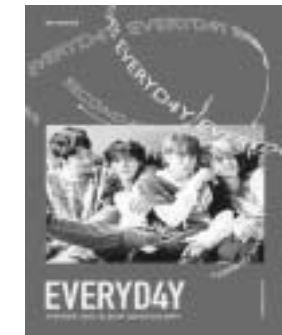
특히 배우들의 열연은 '말맛' 코미디를 살리는데 한몫했다. 이성민과 영화 '보안관'에 이어 또다시 코믹 캐릭터를 맡아 능구렁이 같은 매력을 발산한다. 신하균 또한 순진하면서 지질한 매력을 가진 봉수로 분해 '바람의 신동'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밟지 않은 캐릭터로 그려냈다.

송지효는 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해 신하균과 현실 부부 케미를 뽑내는 등 사랑스러운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엘은 누구나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제니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 작품은 불륜 소재를 코미디로 풀어냈다. 불륜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우려의 사선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병헌 감독은 '코미디로 녹여 다 보니 미화되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륜을 옹호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영화 속에는 불륜을 미화하기 보다 욕망의 집대결 안에 있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 하찮은 쾌감이 주는 허무함과 회한 등을 다룬다. 소재는 자극적일 수 있어도 풀어 나가는 방식은 담백하다. 5일 개봉, 러닝타임 100분.

울킬·줄세우기...위너는 더 위너가 됐다



보이 그룹 위너에 게 4월 4일은 특별한 날이다. 지난해 4월 20일 제 1위 트랩까지 어떠한 장르의 음악을 해도 '위너가 곧 장르'라는 말을 실감한다.

위너는 지난 4월 오후 6시 정규 2집 '에브리데이'로 컴백했다. 무려 4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으로, 멤버들이 4년 동안 작업한 곡들이 실렸다. 위너 앨범 중 가장 많은 곡이 수록됐으며, 장르의 폭도 더욱 넓어졌다.

지난 2014년 데뷔했을 당시 위너는 위너만의 감성을 선보이며 '괴물 신인' 지력을 보여주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위너의 감성을 갖고 가파 트랜드한 장르로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가장 팝스럽고 세련되지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어 오래 들리게 되는 위너의 색깔은 단연 돋보인다.

타이틀곡 '에브리데이'는 위너가 현재 세계적으로 트랜드한 장르인 트랩을 위너만의 색깔로 녹여낸 곡이다. 스웨그가 넘치는 리듬에 위너 특유의 재치 있는 가사가 듣는 재미를 더했다. 지난해 유행의 선두에 선 트로피칼에 이

어서 트랩까지 어떠한 장르의 음악을 해도 '위너가 곧 장르'라는 말을 실감한다.

이곡으로 위너는 발매 동시에 차트 1위에 올랐다. 오늘(5일) 오전 1시 기준 멜론, 엠넷, 올레, 네이버 뮤직, 박스, 지니, 소리바다, 몽키 등 8개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 올킬에 성공했다. 오전 8시 기준 실시간 차트에서도 위너의 돌풍이 계속되며 7곳에서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는 발매 직후 오후 7시 2위로 진입해 한 시간 만에 1위로 치고 올라왔다. 지난해 보이그룹 최초로 차트인 상태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릴리컬'도 진입 성적 6위로 4시간 만에 1위를 달성했고, '탑타입'도 4위로 진입해 2시간 만에 1위를 달성하며, '에브리데이' 발매 전부터 위너 음악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를 실감케 한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8시 기준 멜론 기준 지붕위를 달성했다. 멜론에서는 24시간 동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3억 4천만 건의 기록을 세웠다. 위너는 발매 15시간 만에 이용자 53만 명을 넘어섰다. 지붕까지 찍은 상황에서 24시간 누적 이용자수가 기대되는 상황이

다. 또한 전곡 차트인도 이뤄냈으며, '릴리컬'은 여전히 차트인 중인 것은 물론 '탑타입'이 순위가 역주행하기도 했다.

'으라차차 와이키키' 이이경, 코믹연기 끝판왕이런 것



분장술사 전설의 시작! 목숨

배우 이이경이 한계 없는 코믹연기 끝판왕에 등극하며 시청자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다.

이이경은 JTBC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팔기 총판한 생계형 배우 준기 역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사고유발자인 줄로만 알았던 준기는 각종 오디션에 전진하는 짝내 폭발 고생길을 걸으며 웃음 스티커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극을 이끌고 있다.

변장은 물론 능청과 진장을 더한 표정 연기에 특유의 톤이 붙어 나가는 대사 처리까지 몰론 연기력 호드캐리 중인 이이경.

시청자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으며 코믹연기 끝판왕에 등극한 이이경의 레전드 변신 세트를 짚어 봤다.

보다 소중한 특수분장 사수기

명품 배우를 꾸꾸는 단역 배우의 고달픈 삶이 드러났던 '방사선' 돌연변이! 특수분장사

수 대작전은 참을 수 없는 능청연기로 이이경 표 코믹의 서막을 열었다. 분장이 손상되면 배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손끝과 발끝까지 살아있는 포즈와 분장을 뚫고 나오는 생생한 표정 연기는 인방을 사로잡았다. 이이경은 실제로 3~4시간 정도 걸린 특수분장을 사수하기 위해 화장실까지 참으며 열연을 펼쳤다. 후문. 몸 사리지 않은 열연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 탄생으로 이어졌다.

확신을 감행한 준기가 경험한 고통을 리얼한 표정 연기로 전달하며 웃음 저격에 성공했다. 메소드 연기의 비법은 실제로도 확신에 도전한 열혈 투혼. 덕분에 감독에게 제보를 검사받는 장면에서도 자신감 넘치고 도도한 포즈와 표정으로 끝맺음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카리스마와 웃음을 오가는 이 정재 패러디가 부른 피골상접 베드신 도전

평범함을 거부하는 준기의 열정은 제작사에 프로필을 돌릴 때마다 다양한 캐릭터에 빙의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영화 '합살' 연석진 역 이정재 패러디 장면 역시 목소리 톤까지 바꾸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몰입력을 끌어올렸다. 코미디가 주를 이루는 '와이키키'에서 이이경의 변화무쌍한 연기 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상의 탈의까지 하는 열혈 패러디 덕분에 베드신 대역 배우 제안을 받은 준기의 피골상접한 몸골까지 소화한 이이경의 '뽀뽀' 상황은 빈틈없는 웃음을 완성했다.

별풍선을 부르는 신개념 먹방 BJ 나 홀로 생소 끝판왕

배우의 꿈을 꾸면서 세계까지

이어가야 하는 준기의 도전은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별풍선 대박을 꿈꾸며 먹방 피규어에 나선 준기는 신개념 떡볶이를 선보였다. 뼈를 맛있게 바라보는 눈빛부터 우아하게 뼈를 집어 든 손끝까지 살아있는 진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웬만사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이경은 다이나믹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며 '와이키키'만이 선사할 수 있는 황당하고 신선한 웃음의 정점을 찍었다.

눈썹이 없어도 멧짐은 뽀뽀! 반할 수밖에 없는 '내 캣대 같은 애인'

눈썹을 잃고 멧짐 검사 배역까지 빼앗겼지만 서진(고원희 분)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고 생색 대신 미소로 응원을 보내며 끌려가는 모습을 눈치잡지 않게 진지해서 다 멋졌다. 영화를 포기하고 면접장에서 펼친 난동은 준기의 인생 연기였다. '와이키키' 대표 사고유발자였던 준기에게 로 맨스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이이경은 눈썹 없이도 로맨틱한 서진과의 첫 키스로 설렘까지 자아내며 매력 부지의 면모를 발신했다.

한편, 이이경은 '으라차차 와이키키' 종영 후 바로 MBC '검법남녀'에 합류해 대세 행보를 이어간다. 종영까지 4회분을 남겨둔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1시 JTBC에서 방송된다.

저성장 시대의 예능, 소확행 라이프스타일



계획이다.

이런 예능들의 특징은 채워넣는 삶에서 덜어내는 삶으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문명에서 자연, 생애, 환경으로 돌아가려는 삶을 지향한다. '숲속의 작은 집'의 내명석 PD는 "우

요즘 예능은 라이프스타일을 그 어느때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 정해진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기만 했던 시절을 거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중 1~2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요즘 TV 예능들이 대중에게 그 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준다. 이는 결국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는 예능으로 귀결된다.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주는 대표적 예능이 JTBC '효리네 민박'이다. 대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벗어나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사는 이효리의 집에 민박하면서 그런 삶을 조금 체험하게 한다.

8월 첫방송되는 tvN '숲속의 작은 집'도 그런 예능이다. 느리지만 단순한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행복을 만드는 케렌시아가 유쾌하다. 케렌시아의 원뿔은 투우장의 소가 투우사에게 달려가기 직전 마지막 순간으로 마무리하는 좁은 공간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휘게(hygge)나 라곰(lagom), 오캄(au calme)이라는 단어도 그와 맞닿아있다. 모두 편안함,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삶이다.

리는 너무나 많이 연결돼 있다. '우'를 안보면 100개씩 외웠을 때도 있다. 문자와 카톡을 끊으면 상사나 애인에게 혼난다. 이 모든 연결을 하루만이라도 끊고 살자는 게 계획의도에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시대라고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사이즈를 줄인 소확행(小確幸)이다. 작지만 나만의 확실한 행복이야기이다. 저성장시대 소비구조가 율로와 판매 사이에 있었지만, 가성비보다 가심비(價心費)를 따지는 소비자는 자제가 사이즈를 줄이는 소비라는 뜻이다.

오늘의 운세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음력 2월 21일)



▶**황띠** 책임진 일을 다 하라. 남의 것이 내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격이니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워 사람 조언에 용기백배하니 행운이 있구나. 단, 3, 9, 11월생을 조심해야 한다. 나, 바, 흥 성씨는 서, 북쪽은 불길하니 피하라.



▶**황띠** 지금은 1, 3, 5월생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를 멀리하는 것보다 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 직장과 사업보다 대인관계가 잘못돼 구설에 오를 듯하다. 자식 걱정과 애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다. 검은색은 피하라. 지출이 심하다.



▶**황띠** 5, 10, 11월생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이루고, 골치 아픈 일은 동북쪽 사람 덕에 해결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격정할 일 없겠으니 늦은 시간 외출해서는 안 된다. 뱀, 뱀, 돼지띠가 하는 말을 새겨들으라.



▶**황띠** 지금은 둘 중 하나를 택하기 이르다. 2, 7, 10월생은 소, 용, 양, 개띠를 멀리하면 안 된다. 하는 일을 과감히 변동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재물과 생업은 순풍에 돛 달게 된다.



▶**황띠** 결심을 내일로 미루면 손해가 크니 벌여놓은 일은 오늘로 끝내라. 1, 2, 7월생 유혹이 있으니 귀를 막고, 자신의 처신과 분수대로만 진행해야 한다. 가, 천, 흥 성씨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황띠** 남자는 뱀, 원숭이, 돼지띠 여자가 내게 에너지 역할을 하니 더욱 소중히 생각하라. 지금 인내하면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다.



▶**황띠** 위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다가 훗날 후회할 일이 있겠다. 1, 2, 4, 5월생 좀 더 주관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라. 소, 용, 개띠 동료나 친지가 조언하면 귀담아들어야 한다. 본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이다.



▶**황띠** 승패와 관련 있다 해도 그를 미워하면 화가 미친다. 2, 4, 6월생은 나 자신만 챙기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라. 북쪽과 동쪽 매매 건 곧 구매자가 나타난다. 남편 가정을 위해 좀 더 대화시켜 가족 관심을 유도하라.



▶**황띠** 욕심은 금물. 주머니가 비어다고 옛 생각하지 말라. 뱀, 토끼, 말띠의 진실을 알지 못 하니 큰 시련이 닥칠까 염려된다. 가, 바, 흥 성씨를 함부로 대하다 구설에 오른다. 공직자는 영전수가 있다.



▶**황띠** 분수를 알고 분명하게 처신하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이는 것이 현재 보약이다. 5, 8, 10월생 답답한 일이 풀린다. 만약 힘이 필요하면 가, 흥, 흥 성씨와 상의하라. 두 가지 직업은 골치 아프다.



▶**황띠** 세일이 가면 갈수록 인생 항로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가, 나, 흥 성씨는 부부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하려는 일에 도움이 된다. 3, 9, 10월생 승진, 재운 길.



▶**황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잊지 말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2, 7, 8월생 힘이 필요하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하라. 쥐, 토끼, 닭띠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경솔함이 없도록 노력하라.